

민간경비원 신입교육과목 필요성 및 활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Necessity and Recognizing Usability of Recruit Education Curriculum for Security Personnel

방 환 복*

<목 차>

I. 서론	III. 연구결과 및 논의
II. 연구방법	IV. 결론 및 제언

<요 약>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입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입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입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교과목, 활용성, 필요성

* 선문대학교 국제무도경호학부 외래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체제의 구조적 분화에 의해 물질적 풍요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향락적 풍조와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치안활동에 현대적 시큐리티제도가 참여하게 된 시기는 195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시큐리티산업의 발달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고 1980년대 초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도입되면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안황권 외, 2007: 93).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던 당시 10여 개에 불과했던 민간경비업체는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05 APEC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2,834개 업체에 135,400명(사이버경찰청, 2008)의 경비원이 종사할 정도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체의 양적인 성장과는 다르게 교육제도 및 체계 부분은 기대만큼 변화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간경비에 있어서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질적 향상의 바탕이 되는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경비인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즉 치안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준공공재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경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강길훈, 1999: 3).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단순 업무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게 되었고, 일반신임 경비원교육훈련의 제도가 마련되어 양질의 민간경비서비스를 제공과 민간경비 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장에서 각기 다른 근무를 하는 민간경비원의 실무특성을 고려한 교과목 편성과 교육기간, 교육훈련 주체측의 시스템 미흡과 교수인력 부족, 교육방법상의 문제 등을 학계와 현장 실무자는 지적하고 있다(이상천, 2005: 119-123; 김상균, 2004: 592; 공배완, 2007: 27-31).

특히, 신입교육 교과목 편성시간과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특성과 종류를 고려한 현장 중심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술적인 자료와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입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입 교육이 현장 업무에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구성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 2) 업무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 3) 조사대상자의 특성(직군, 직위, 고용형태, 연령)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 종사자)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입교육시 의무적으로 받는 9개 과목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지역은 2008년 서울, 경기지역 소재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업체 중 50명 이상 근무자의 민간경비업체(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표본 5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특성 5개, 신입교육시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는 과목에 대한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활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론 2개 과목

을 각각 3개 문항으로 총 6개 문항, 실기과목 각각 3개 문항으로 총 21개 문항, 실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한 질문 2개 문항 등으로 총 34 문항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신임교육시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는 9개 과목에 대한 실제 업무현장에서 활용성 정도에 질문은 1. 교육시 배운 과목내용들을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2. 교육시 배운 과목내용으로 인해 나의 업무 수행이 향상될 수 있었는가?, 3. 교육시 배운 과목내용으로 인해 업무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등의 3가지 질문을 각 과목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각 과목에 대한 활용성은 Likert Type 의 5단계 평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 그렇지 않다, 3점 : 그저 그렇다, 4점 : 그렇다, 5점 : 아주 그렇다).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지의 타당도는 이를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평가하게 하는 내용타당도를 방법을 선택하였다. 비교적 설문지의 내용 구성이 단순하고 동일한 구조로 각 과목에 대한 활용성을 묻는 설문지로 경호 관련학과 K대학 교수 1명, K대학 교수 1명, S대학 1명, Y대학 교수 1명 등으로 각각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하게 한 결과, 설문지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평가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설문지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요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설문지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내용타당도 검증만 하였음을 밝힌다. 신임교육시 교육과목인 9개 과목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Cronbach's α 값을 나타냈다.

<표 1> Cronbach's α 신뢰도 검증

	항목 Cronbach's α
경비업· 경직· 청경법	0.861
범죄예방론	0.857
테러대응법	0.864
화재대처법	0.854
응급처치법	0.853
분사기 사용법	0.859
예절 및 인권보호	0.863
체포, 호신술	0.860
질문 및 검색요령	0.859
Cronbach's α	0.873

※ 용어해설 : 경비업· 경직· 청경법(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문항에서 Cronbach's α 값과 문항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의 수치로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절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절차는 우선 보조조사원들에게 자료배포, 자료회수, 답변의 충실도에 대한 요령을 숙지시키고 연구자를 포함한 보조조사원들이 관련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응답시 유의사항과 질문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설문지 내용 중에 이해하기 힘든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원들이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최초 배부한 설문지 수는 600부였고, 회수한 설문지는 570부, 연구자료 적합한 설문지는 총 551부였다.

4. 분석방법

설문지의 응답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 거짓문항을 이용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이중기입, 무기입 자료 등은 자료에서 제외시키고, 유효 표본만을 부호화(coding)하였다. 부호화한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코딩과 입력이 끝난 자료는 SPSS Win 12.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내용과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 1) 각 과목의 실제 업무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과 단순빈도 (Frequency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과목의 실제업무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시설경비와 기계경비로 구분하여 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과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목의 실제 업무현장의 활용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이후 사후다중비교(Post hoc test)의 하나인 LSD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과목과 불필요한 과목 결과 분석

1)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과목

<표 2>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3과목 다중응답 빈도분석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경비업·경직·청경법	1	215	13.2	39.7
범죄예방론	2	223	13.7	41.2
테러대응법	3	83	5.1	15.3
화재대처법	4	256	15.8	47.3
응급처치법	5	219	13.5	40.5
분사기사용법	6	86	5.3	15.9
예절 및 인권교육	7	238	14.7	44.0
체포 및 호신술	8	206	12.7	38.1
질문 및 검색요령	9	97	6.0	17.9
Total responses		1623	100.0	300.0
10 missing cases; 541 valid cases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에 보면 응답한 사람이 모두 541명이며, 모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0명임을 알 수 있다. Total responses의 Count가 1623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541명이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과목을 각각 3개씩 응답하여 1,623개를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Pct of Responses는 응답된 변수 값 기준 백분율로 Total responses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합계 1,623개를 100.0%로 보았을 때 각각의 Count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1623개의 답 중에서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과목은 화재대처법 256(15.8%), 예절 및 인권보호 238(14.7%), 범죄예방론 223(13.7%)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Pct of Cases는 응답된 사례수(541) 기준 백분율로 응답자 541명을 100.0%로 보았을 때의 각 Count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은 직군, 직위, 고용형태, 연령별로 실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과목 3가지를 다중응답 하라고 했을 때의 결과이다. 먼저 직군의 경우, 9개의 과목 중에서 시설경비와 기계경비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화재대처법 시설경비는 138(19.6%), 기계경비 118(12.9%)로 시설경비에서 근무하는 자가 기계경비에서 근무하는 자보다 필요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절 및 인권교육에서는 기계경비 150(16.3%) 시설경비 88(12.5%)로 예절 및 인권교육 과목은 기계경비에서 근무하는 자가 시설경비에서 근무하는 자보다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 및 호신술 과목은 기계경비 145(15.8%) 시설경비 61(8.7%)로 기계경비에서 근무하는 자가 시설경비에서 근무하는 자보다 체포 및 호신술 과목의 필요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직군별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과목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시설경비는 화재대처법, 기계경비는 예절 및 인권교육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직위의 경우, 관리자와 종사자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테러대응법 과목으로 관리자 35(8.5%) 종사자 48(4.0%), 예절 및 인권교육은 종사자 193(15.9%) 관리자 45(10.9%), 체포 및 호신술은 종사자 168(13.9%), 관리자 38(9.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직위별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과목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자는 화재대처법, 종사자는 예절 및 인권교육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표 3>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3과목 다중응답 교차분석

구 분	시설	기계	관리	종사	정규	계약	파트	20세 이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 이상	Row Total
경비업·경직·청경법	92	123	65	150	172	35	8	51	107	37	9	11	215
범죄예방론	13.0	13.1	15.8	12.4	13.3	14.2	9.2	15.5	13.2	13.3	11.1	9.2	13.2
법외예방론	103	120	61	162	176	35	12	43	122	31	11	16	223
테러대응법	14.6	13.1	14.8	13.4	13.6	14.2	13.8	13.0	15.0	11.1	13.6	13.3	13.7
테러대응법	4.5	3.8	3.5	4.8	6.9	6	8	19	42	13	2	7	83
테러대응법	6.4	4.1	8.5	4.0	5.3	2.4	9.2	5.8	5.2	4.7	2.5	5.8	5.1
화재대처법	138	118	66	190	209	31	16	57	118	47	11	23	256
화재대처법	19.6	12.9	16.1	15.7	16.2	12.6	18.4	17.3	14.5	16.8	12.3	11.7	15.8
응급처치법	93	126	56	163	182	28	9	43	106	46	10	14	219
응급처치법	13.2	13.7	13.6	13.4	14.1	11.4	10.3	13.0	13.0	16.5	12.3	11.7	13.5
분사기사용법	39	47	24	62	69	11	6	21	41	11	5	8	86
분사기사용법	5.5	5.1	5.8	5.1	5.3	4.5	6.9	6.4	5.0	3.9	6.2	6.7	5.3
예절 및 인권교육	88	150	45	193	189	36	13	41	123	37	16	21	238
예절 및 인권교육	12.5	16.3	10.9	15.9	4.7	14.6	14.9	12.4	15.1	13.3	19.8	17.5	14.7
체포 및 호신술	61	145	38	168	158	40	8	40	108	40	9	9	206
체포 및 호신술	8.7	15.8	9.2	13.9	12.2	16.3	9.2	12.1	13.3	14.3	11.1	7.5	12.7
질문 및 검색요령	46	51	21	76	66	24	7	15	46	17	8	11	97
질문 및 검색요령	6.5	5.6	5.1	6.3	5.1	9.8	8.0	4.5	5.7	6.1	9.9	9.2	6.0
Colum Total	705	918	411	1212	1290	246	87	330	813	279	81	120	1623
Total	43.4	56.6	23.5	74.7	79.5	15.2	5.4	20.3	50.1	17.2	5.0	7.4	100.0

Percentages and totals based on responses
541 valid cases; 10 missing cases

고용형태의 경우, 경비업·경직·청경법은 계약직 35(14.2%) 파트타임 8 (9.2%), 테러대응법은 파트타임 8(9.2%) 계약직 6(2.4%), 화재대처법은 파트타임 16(18.4%) 계약직 31(12.6%), 응급처치법은 정규직 182(14.1) 파트타임 9(10.3), 체포 및 호신술은 계약직 40(16.3%) 파트타임 8(9.2%)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고용형태별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과목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규직과 파트타임은 동일하게 화재대처법, 계약직은 체포 및 호신술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경비업·경직·청경법은 24세 이하 51(15.5%) 40세 이상 11(9.2%), 범죄예방론은 25~29세 122(15.0%) 30~34세 31(11.1%), 화재대처법 25~29세 118(14.5%) 40세 이상 23(19.2%), 응급처치법 30~34세 46(16.5%) 40세 이상 14(11.7%), 예절 및 인권교육은 35~39세 16(19.8%) 30~34세 37(13.3%). 체포 및 호신술 30~34세 40(14.3%) 40세 이상 9(7.5%), 질문 및 검색요령은 35~39세 8(9.9%) 24세 이하 15(4.5%)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연령별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과목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24세 이하는 화재대처법, 25~29세는 예절 및 인권교육, 30~34세는 화재대처법, 35~39세는 예절 및 인권교육, 40세 이상은 화재대처법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즉 24세 이하, 30~34세, 40세 이상 등은 동일하게 화재대처법 과목을 꼭 필요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29세와 25~39세는 예절 및 인권교육 등에 동일하게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업무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과목

<표 4>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3과목 다중응답 빈도분석

Category label	Cod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경비업·경직·청경법	1	164	10.1	30.3
범죄예방론	2	178	11.0	32.9
테러대응법	3	347	21.4	64.1
화재대처법	4	89	5.5	16.5
응급처치법	5	136	8.4	25.1
분사기사용법	6	188	11.6	34.8
예절 및 인권교육	7	98	6.0	18.1
체포 및 호신술	8	151	9.3	27.9
질문 및 검색요령	9	272	16.8	50.3
Total responses		1623	100.0	300.0

10missing cases: 541 valid cases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에 보면 응답한 사람이 모두 541명이며, 모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0명임을 알 수 있다. Total responses의 Count가 1,623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541명이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을 각각 3개씩 응답하여 1,623개를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Pct of Responses는 응답된 변수 값 기준 백분율로 Total responses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합계 1,623개를 100.0%로 보았을 때 각각의 Count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1,623개의 답 중에서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은 테러대응법 347(21.4%), 질문 및 검색요령 272(16.8%), 분사기 사용법 188(11.6%)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Pct of Cases는 응답된 사례수(541) 기준 백분율로 응답자 541명을 100.0%로 보았을 때의 각 Count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3과목 다중응답 교차분석

구 분	시설	기계	관리	종사	정규	계약	파트	20세 이상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세 이상	Row Total
경비업·경직·	81	83	38	126	129	25	10	33	76	26	7	22	164
창경법	11.5	9.0	9.2	10.4	10.0	10.2	11.5	10.0	9.3	9.3	8.6	18.3	10.1
범죄	73	105	46	132	152	17	9	35	82	39	10	12	178
예방론	10.4	11.4	11.2	10.9	11.8	6.9	10.3	10.6	10.1	14.0	12.3	10.0	11.0
테러	134	213	75	272	271	60	16	65	179	60	18	25	347
대응법	19.0	23.2	18.2	22.4	21.0	24.4	18.4	19.7	22.0	21.5	22.2	20.8	21.4
화재	27	62	21	68	73	13	3	19	48	16	2	4	89
대처법	3.8	6.8	5.1	5.6	5.7	5.3	3.4	5.8	5.9	5.7	2.5	3.3	5.5
응급	60	76	30	106	100	25	11	22	70	25	8	11	136
처치법	8.5	8.3	7.3	8.7	7.8	10.2	12.6	6.7	8.6	9.0	9.9	9.2	8.4
분사기사용법	82	106	50	138	149	34	5	41	97	32	8	10	188
	11.6	11.5	12.2	11.4	11.6	13.8	5.7	12.4	11.9	11.5	9.9	8.3	11.6
예절 및 인권교육	44	54	33	65	74	16	8	25	49	16	5	3	98
	6.2	5.9	8.0	5.4	5.7	6.5	9.2	7.6	6.0	5.7	6.2	2.5	6.0
체포 및 호신술	92	59	39	112	124	17	10	33	77	13	10	18	151
	13.0	6.4	9.5	9.2	9.6	6.9	11.5	10.0	9.5	4.7	12.3	15.0	9.3
질문 및 검색요령	112	160	79	193	218	39	15	57	135	52	13	15	272
	15.9	17.4	19.2	15.9	16.9	15.9	17.2	17.3	16.6	18.6	16.0	12.5	16.8
Colum	705	918	411	1212	1290	246	87	330	813	279	81	120	1623
Total	43.4	56.6	25.3	74.7	79.5	15.2	5.4	20.3	50.1	17.2	5.0	7.4	100.0

Percents and totals based on responses
541 valid cases; 10 missing cases

<표 5>는 직군별로 실제 업무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과목 3가지를 다중응답 하라고 했을 때의 결과이다. 9개의 과목 중에서 시설경비와 기계경비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화재대처법을 보면 기계경비 62(6.8%), 시설경비는 27(3.8%), 기계경비에서 근무하는 자가 시설경비에서 근무하는 자보다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체포 및 호신술 과목은 시설경비 92(13.0%)기계경비 59(6.4%)로 시설경비에서 근무하는 자가 기계경비에서 근무하는 자보다 체포 및 호신술 과목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직군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시설경비와 기계경비 모두 테러대응법으로 나타났다. 직위의 경우, 관리자와 종사자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테러대응법 과목으로 종사자 272(22.4%)관리자 75(18.2%), 질문 및 검색 요령은 관리자 79(19.2%) 종사자 193(15.9%)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직위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자는 질문 및 검색요령, 종사자는 테러대응법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경우, 관리자와 종사자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론 과목으로 정규직 152(11.8%) 계약직 17(6.9%), 테러대응법은 계약직 60(24.2%) 파트타임 16(18.4%), 응급처치법은 파트타임 11(12.6%) 정규직 100(7.8%), 분사기 사용법은 계약직 34(13.8%) 파트타임 5(5.7%), 예절 및 인권교육은 파트타임 8(9.2%) 정규직 74(5.7%), 체포 및 호신술은 파트타임 10(11.5%), 계약직 17(6.9%)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고용형태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의 모두가 테러대응법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경비업·경직·청경법은 40세 이상과 나머지 전 연령층, 범죄예방론은 30-34세와 나머지 전 연령층, 분사기 사용법은 24세 이하 41(12.4%) 40세 이상 10(8.3), 예절 및 인권교육 24세 이하 25(7.6%) 40세 이상 3(2.5%), 체포 및 호신술은 30-34세와 나머지 전 연령층, 질문 및 검색요령은 40세 이상과 전 연령층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연령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40세 이상은 경비업·경직·청경법이라고 하는 반면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 테러대응법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업무현장에서 과목의 활용성 결과 분석

<표 6> 직군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기술통계 및 차이분석(t 검정)

구 분		N	M	SD	df	t	Sig
경비업·경직·청경법	시설경비	243	3.53	0.901	484.362	1.162	0.246***
	기계경비	308	3.44	0.791			
범죄예방론	시설경비	243	3.57	0.944	449.152	-0.620	0.535***
	기계경비	308	3.61	0.738			
테러대응법	시설경비	243	3.31	0.909	522.935	1.657	0.098***
	기계경비	308	3.18	0.922			
화재대처법	시설경비	243	3.87	0.957	549	3.283	0.001***
	기계경비	308	3.61	0.860			
응급처치법	시설경비	243	3.77	1.009	482.458	2.073	0.039***
	기계경비	308	3.60	0.880			
분사기 사용법	시설경비	243	3.84	0.997	476.958	1.275	0.203***
	기계경비	308	3.74	0.854			
예절 및 인권교육	시설경비	243	3.83	0.945	479.838	-0.848	0.397***
	기계경비	308	3.90	0.817			

체포 및 호신술	시설경비	243	3.40	0.967	549	-2.407	0.016***
	기계경비	308	3.59	0.962			
질문 및 검색요령	시설경비	243	3.39	0.899	549	-1.184	0.237***
	기계경비	308	3.47	0.825			
이론교육	시설경비	243	3.55	0.851	460.903	0.293	0.770***
	기계경비	308	3.53	0.691			
실무교육	시설경비	243	3.63	0.692	549	0.770	0.441**
	기계경비	308	3.59	0.636			

*p<0.05, **p<0.01

1) 직군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비교분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직군에 따른 각 과목별 활용성에 대한 평균과 집단간 차이분석을 위한 t-검정 결과를 살펴보자.

직군에 다른 과목별 활용성에 대한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 경비업·경직·청경법, 분사기사용법, 체포 및 호신술, 질문 및 검색 요령 등의 과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대처법의 경우 시설경비 평균 3.87(SD=0.957), 기계경비 3.61(SD= 0.860) 시설경비가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직군에 따른 화재대처법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법의 경우 시설경비 평균 3.77(SD=1.009), 기계경비 3.60(SD=0.880) 시설경비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응급처치법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위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비교분석

<표 7> 직위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기술통계 및 평균 차이분석

구 분		N	M	SD	df	t	Sig.
경비업·경직·청경법	관리자	144	3.40	0.933	549	-1.383	0.167**
	종사자	407	3.51	0.806			
범죄예방론	관리자	144	3.41	0.956	213.595	-2.810	0.005***
	종사자	407	3.66	0.778			
테러대응법	관리자	144	3.22	0.917	549	-0.314	0.754***
	종사자	407	3.24	0.919			
화재대처법	관리자	144	3.60	0.934	549	-1.976	0.049***
	종사자	407	3.77	0.901			
응급처치법	관리자	144	3.52	1.017	549	-2.350	0.019***
	종사자	407	3.73	0.909			

분사기 사용법	관리자	144	3.65	0.926	549	-1.969	0.049***
	종사자	407	3.83	0.915			
예절 및 인권교육	관리자	144	3.65	0.971	220.385	-3.309	0.001***
	종사자	407	3.95	0.826			
체포 및 호신술	관리자	144	3.38	0.975	549	-1.797	0.073***
	종사자	407	3.55	0.963			
질문 및 검색요령	관리자	144	3.24	0.903	549	-3.156	0.002***
	종사자	407	3.50	0.833			
이론교육	관리자	144	3.40	0.859	218.895	-2.256	0.025***
	종사자	407	3.58	0.724			
실무교육	관리자	144	3.47	0.658	549	-2.965	0.003***
	종사자	407	3.65	0.656			

*p<0.05,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각 과목별 활용성에 대한 평균과 집단간 차이분석을 위한 t-검정 결과를 살펴보자.

범죄예방론의 경우 종사자 평균 3.66(SD=0.778), 관리자 3.41(SD=0.956)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범죄예방론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대응법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24(SD=0.919), 관리자 3.22(SD=0.917)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화재대처법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77(SD=0.901), 관리자 3.60(SD=0.934)으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화재대처법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법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73(SD=0.909), 관리자 3.52(SD=1.017)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응급처치법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기사용법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83(SD=0.915), 관리자 3.65(SD=0.926)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분사기활용법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절 및 인권교육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95(SD=0.826), 관리자 3.65(SD= 0.971)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예절 및 인권교육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및 호신술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55(SD=0.963), 관리자 3.38(SD=0.975)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질문 및 검색 요령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50(SD= 0.833), 관리자 3.24(SD=0.903)으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질문 및 검색 요령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교육 전체의 경우 종사자가 평균 3.65(SD=0.656), 관리자 3.47(SD=0.658)로 종사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른 이론교육전체의 활용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용형태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비교분석

<표 8>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형태에 따른 각 과목별 활용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One-way ANOVA), 사후다중비교(Post hoc test LSD)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고용형태에 따른 각 과목별 활용성에 대한 차이 분석(One-way ANOVA)과 Post hoc test LSD 결과, 경비업·경직·청경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법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대처법의 경우 정규직 평균 3.78(SD=0.927), 계약직 3.61(SD=0.813), 파트타임 3.38(SD=0.861)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화재대처법에서는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399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응급처치법의 경우 정규직 평균 3.72(SD=0.960), 계약직 3.63(SD=0.778), 파트타임 3.30(SD=0.996)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응급처치법에서는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423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8> 고용형태에 각 과목의 활용성 기술통계

구 분		N	M	SD
경비업·경직·청경법	정규직	432	3.50	0.862
	계약직	82	3.48	0.757
	파트타임	37	3.24	0.760
	합계	551	3.48	0.842
범죄예방론	정규직	432	3.60	0.839
	계약직	82	3.62	0.826
	파트타임	37	3.41	0.798
	합계	551	3.59	0.834
테러대응법	정규직	432	3.26	0.918
	계약직	82	3.21	0.939
	파트타임	37	3.03	0.866
	합계	551	3.24	0.918

화재대처법	정규직	432	3.78	0.927
	계약직	82	3.61	0.813
	파트타임	37	3.38	0.861
	합계	551	3.73	0.912
응급처치법	정규직	432	3.72	0.960
	계약직	82	3.63	0.778
	파트타임	37	3.30	0.996
	합계	551	3.68	0.942
분사기사용법	정규직	432	3.83	0.924
	계약직	82	3.66	0.864
	파트타임	37	3.46	0.931
	합계	551	3.78	0.920
예절 및 인권교육	정규직	432	3.93	0.882
	계약직	82	3.80	0.823
	파트타임	37	3.32	0.709
	합계	551	3.87	0.875
체포 및 호신술	정규직	432	3.52	0.973
	계약직	82	3.65	0.948
	파트타임	37	3.08	0.862
	합계	551	3.51	0.968
질문 및 검색요령	정규직	432	3.44	0.878
	계약직	82	3.57	0.802
	파트타임	37	3.08	0.640
	합계	551	3.44	0.859
이론교육	정규직	432	3.55	0.779
	계약직	82	3.55	0.710
	파트타임	37	3.32	0.699
	합계	551	3.54	0.765
실무교육	정규직	432	3.64	0.670
	계약직	82	3.59	0.574
	파트타임	37	3.24	0.637
	합계	551	3.60	0.661

분사기사용법의 경우 정규직 평균 3.83(SD=0.924), 계약직 3.66(SD=0.864), 파트타임 3.46(SD=0.931)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분사기사용법에서는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374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9> 고용형태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평균차이 분석

구 분		SS	df	MF	F	Sig.	Post hoc test LSD	Sig
경비업·경직·청경법	집단-간	2.248	2	1.124	1.590	0.205***		
	집단-내	387.262	548	0.707				
	합계	389.510	550					

범죄예방론	집단-간	1.425	2	0.712	1.023	0.360***		
	집단-내	381.512	548	0.696				
	합계	382.936	550					
테러대응법	집단-간	1.917	2	0.958	1.138	0.321***		
	집단-내	461.412	548	0.842				
	합계	463.328	550					
화재대처법	집단-간	6.737	2	3.369	4.094	0.017***	a>c(0.399>	0.010***
	집단-내	450.882	548	0.823				
	합계	457.619	550					
응급처치법	집단-간	6.279	2	3.139	3.570	0.029***	a>c(0.423>	0.009***
	집단-내	481.863	548	0.879				
	합계	488.142	550					
분사기 사용법	집단-간	6.237	2	3.119	3.718	0.025***	a>c(0.374)	0.018***
	집단-내	459.628	548	0.839				
	합계	465.866	550					
예절 및 인권교육	집단-간	12.713	2	6.356	8.525	0.000***	a>c(0.602)	0.000***
	집단-내	408.616	548	0.746			b>c(0.481)	0.005***
	합계	421.328	550					
체포 및 호신술	집단-간	8.341	2	4.170	4.504	0.011***	a>c(0.435)	0.009***
	집단-내	507.387	548	0.926			b>c(0.565)	0.003***
	합계	515.728	550					
질문 및 검색요령	집단-간	6.210	2	3.105	4.262	0.015***	a>c(0.359)	0.014***
	집단-내	399.253	548	0.729			b>c(0.492)	0.004***
	합계	405.463	550					
이론교육	집단-간	1.783	2	0.891	1.527	0.218***		
	집단-내	319.991	548	0.584				
	합계	321.774	550					
실무교육	집단-간	5.564	2	2.782	6.497	0.002***	a>c(0.403)	0.000***
	집단-내	234.645	548	0.428			b>c(0.356)	0.006***
	합계	240.209	550					

*p<0.05, **p<0.01, ***p<0.001(a:정규직, b:계약직, c:파트타임)

예절 및 인권교육의 경우 정규직 평균 3.93(SD=0.882), 계약직 3.80(SD= 0.823), 파트타임 3.32(SD=0.70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절 및 인권 교육에서는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 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602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으며, 계약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481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포 및 호신술 경우 계약직 평균 3.65(SD=0.948), 정규직 3.52 (SD=0.973), 파트타임 3.08(SD=0.86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체포 및 호신술에서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435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으며, 계약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565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질문 및 검색요령의 경우 계약직 평균 3.57(SD=0.802), 정규직 3.44(SD= 0.878), 파트타임 3.08(SD=0.840)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질문 및 검색요령에서는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359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계약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492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실무교육 전체의 경우 정규직 평균 3.64(SD=0.670), 계약직 3.59(SD=0.574), 파트타임 3.24(SD=0.637)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무교육 전체에서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정규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403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계약직과 파트타임 집단에서는 0.356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연령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비교분석

<표 10>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각 과목별 활용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One-way ANOVA), 사후다중비교(Post hoc test LSD)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경비업·경직·청경범의 경우, 각 집단별 평균을 보면 24세 이하 3.59(SD= 0.870), 25~29세 3.51(SD=0.866), 30~34세 3.44(SD=0.814), 40세 이상 3.31(SD=0.733), 35~39세 3.13(SD=0.6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업·경직·청경범 과목의 경우 24세 이하에서 집단에서 활용성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활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비업·경직·청경범에서는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후다중비교 결과, 24세 이상과 35~39세 집단에서는 0.458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397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범죄예방론의 경우, 25~29세 평균 3.67(SD=0.8198), 30~34세 3.60(SD=3.754), 24세 이하 2.52(SD=0.984), 40세 이상 3.51(SD=0.757), 35-39세 3.30(SD=0.651)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범죄예방론에서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후다중비교 결과,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367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테러대응법의 경우, 40세 이상 평균 3.36(SD=0.883), 24세 이하 3.31(SD=0.926), 25~29세 3.28(SD=0.922), 30~34세 3.08(SD=0.947), 35~ 39세 2.87(SD=0.681)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테러대응법에서는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24세 이상과 35~39세 집단에서는 0.442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415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89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0> 연령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기술통계

구분		N	M	SD	구분	N	M	SD
경비업·경직 ·청경법	24세 이하	110	3.59	0.870	예절 및 인권교육	110	4.05	0.937
	25~29세	273	3.51	0.866		273	3.86	0.891
	30~34세	93	3.44	0.814		93	3.84	0.811
	35~39세	30	3.13	0.629		30	3.50	0.777
	40세 이상	45	3.31	0.733		45	3.73	0.720
	합계	551	3.48	0.842		551	3.87	0.875
범죄예방론	24세 이하	110	3.52	0.984	체포 및 호신술	110	3.47	0.993
	25~29세	273	3.67	0.819		273	3.58	0.993
	30~34세	93	3.60	0.754		93	3.48	0.940
	35~39세	30	3.30	0.651		30	3.17	0.699
	40세 이상	45	3.51	0.757		45	3.40	0.939
	합계	551	3.59	0.834		551	3.51	0.968
테러대응법	24세 이하	110	3.31	0.926	질문 및 검색요령	110	3.52	0.984
	25~29세	273	3.28	0.922		273	3.50	0.867
	30~34세	93	3.08	0.947		93	3.30	0.763
	35~39세	30	2.87	0.681		30	3.23	0.626
	40세 이상	45	3.36	0.883		45	3.24	0.743
	합계	551	3.24	0.918		551	3.44	0.859
화재대처법	24세 이하	110	3.75	1.024	이론교육	110	3.55	0.844
	25~29세	273	3.76	0.907		273	3.59	0.775
	30~34세	93	3.67	0.864		93	3.52	0.718
	35~39세	30	3.40	0.621		30	3.22	0.552
	40세 이상	45	3.78	0.902		45	3.41	0.668
	합계	551	3.73	0.912		551	3.54	0.765
응급처치법	24세 이하	110	3.67	1.024	실무교육	110	3.67	0.706
	25~29세	273	3.78	0.953		273	3.64	0.683
	30~34세	93	3.55	0.854		93	3.54	0.582
	35~39세	30	3.30	0.702		30	3.29	0.488
	40세 이상	45	3.60	0.915		45	3.56	0.611
	합계	551	3.68	0.942		551	3.60	0.661
분사기사용법	24세 이하	110	3.88	0.984				
	25~29세	273	3.74	0.944				
	30~34세	93	3.86	0.788				
	35~39세	30	3.53	0.730				
	40세 이상	45	3.80	0.968				
	합계	551	3.78	0.920				

화재대처법의 경우, 40세 이상 평균 3.78(SD=0.902), 24세 이하 3.31(SD=0.902), 25~29세 3.76(SD=0.907) 24세 이하 3.75(SD=1.024), 30~34세 3.67(SD=0.864), 35~39세 3.40(SD=0.621)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화재대처법에서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후다중비교 결과, 24세 이상과 35~39세 집단에서는 0.362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응급처치법의 경우, 25~29세 평균 3.78 (SD=0.953), 24세 이하 3.67 (SD=1.024), 40세 이상 3.60(SD=0.915), 30~34세 3.55(SD=0.854), 35~39세 3.30(SD=0.70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응급처치법은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ost hoc test LSD 결과, 25~29세와 30~34세 집단에서는 0.232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480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1> 연령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평균 차이분석

구 분		DD	df	MF	F	Sig.	Post hoc test LSD	Sig.
경비업·경직·청경법	집단-간	6.678	4	1.670	2.381	0.051***	a>d(0.485) b>d(0.397)	0.008*** 0.019***
	집단-내	382.832	546	0.701				
	합계	389.510	550					
범죄예방론	집단-간	4.982	4	1.246	1.799	0.128***	b>d(0.367)	0.022***
	집단-내	377.954	546	0.692				
	합계	382.936	550					
테러대응법	집단-간	8.305	4	2.076	2.491	0.042***	a>d(0.442) b>d(0.415) e>d(0.489)	0.019*** 0.018*** 0.023***
	집단-내	455.024	546	0.833				
	합계	463.328	550					
화재대처법	집단-간	4.078	4	1.019	1.227	0.298***	b>d(0.362)	0.039***
	집단-내	453.541	546	0.831				
	합계	457.619	550					
응급처치법	집단-간	8.978	4	2.244	2.558	0.038***	b>c(0.232) b>d(0.480)	0.040*** 0.008***
	집단-내	479.164	546	0.878				
	합계	488.142	550					
분사기 사용법	집단-간	4.018	4	1.004	1.187	0.315***		
	집단-내	461.848	546	0.846				
	합계	465.866	550					
예절 및 인권교육	집단-간	8.790	4	2.197	2.908	0.021***	a>d(0.555) b>d(0.321) c>d(0.364)	0.002*** 0.037*** 0.030***
	집단-내	412.539	546	0.756				
	합계	421.328	550					
체포 및 호신술	집단-간	5.722	4	1.430	1.531	0.192***	b>d(0.416)	0.026***
	집단-내	510.006	546	0.934				
	합계	515.728	550					

질문 및 검색요령	집단-간	6.502	4	1.626	2.225	0.065***		
	집단-내	398.960	546	0.731				
	합계	405.463	550					
이론교육	집단-간	4.607	4	1.152	1.983	0.096***	a>d(0.338)	0.032***
	집단-내	317.167	546	0.581			b>d(0.373)	0.011***
	합계	321.774	550					
실무교육	집단-간	4.400	4	1.100	2.547	0.039***	a>d(0.380)	0.005***
	집단-내	235.809	546	0.432			b>d(0.359)	0.005***
	합계	240.209	550					

*p<0.05, **p<0.01(a:24세 이하, b:25~29세, c:30~34세, d:35~39세, e:40세 이상)

예절 및 인권교육 경우, 24세 이하 평균 4.50(SD=0.937), 25~29세 3.86 (SD=0.891), 30~34세 3.84(SD=0.811), 40세 이상 3.73(SD=0.720), 35~39세 3.50 (SD=0.777)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절 및 인권교육에서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다중비교 결과, 24세 이상과 35~39세 집단에서는 0.555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321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30~34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364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포 및 호신술의 경우, 25~29세 평균 3.58(SD=0.993), 30~34세 3.48(SD=0.940), 24세 이하 3.47(SD=0.993), 40세 이상 3.40(SD=0.939), 35~39세 3.17(SD=0.69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체포 및 호신술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후다중비교 결과,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416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론교육 전체의 경우, 25~29세 평균 3.59(SD=0.775), 24세 이하 3.55(SD=0.884), 30~34세 3.52(SD=0.718), 40세 이상 3.41(SD=0.668), 35~39세 3.22 (SD=0.552)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론교육 전체에서는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후다중비교 결과, 24세 이상과 35~39세 집단에서는 0.338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73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실무교육 전체의 경우, 24세 이하 3.67(SD= 0.706), 25~29세 3.64(SD=0.683), 40세 이상 3.56(SD=0.611), 30~34세 3.54(SD=0.582), 35~39세 3.29(SD=0.488)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무교육 전체에서는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다중비교 결과, 24세 이상과 35~39세 집단에서는

0.380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29세와 35~39세 집단에서는 0.359 평균차이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논 의

민간경비 산업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경비분야의 직무는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직무분야로서 이는 방법, 방재, 방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박동균·배철효, 2007:121). 따라서 민간경비업체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지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신입교육, 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07. 이영석:8).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은 민간경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직구성원의 일반적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다(오홍석, 2004: 297). 2006년 2월 제도개편 전까지는 교육의 일부를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한국경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협회로부터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입교육 일부를 제외한 교육의 운영이 대부분 형식적 교육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부실, 교육기관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2005년 7월 4일 경비업·경직·청경법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06년 2월 5일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제도가 개편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에 따라 일반경비원 교육기관도 경찰청교시를 통하여 47개소로 확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시간도 15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민간경비원 교육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시간과 교과목을 확대한 것은 민간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 견해들과 이와 반대로 특정 협회의 교육독점 현상을 타파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구축하여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서진석, 2006:15).

본 연구에서는 교육제도 개편 이후로 정비된 신입교육 교과목인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이 신입교육의 목적인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부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업무현장에 필요한 과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론과목, 실무과목인 화재대처법, 예절

및 인권교육, 응급처치법의 경우 300%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40% 전후로 상위 빈도를 나타냈다. 경비업·경직·청경법과, 범죄예방론과 같은 이론교육은 신입교육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지식이라는 점에서 과목의 필요성의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무과목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과목은(화재대처법, 예절 및 인권교육, 응급처치법) 교육이전에 어느 정도의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체적 재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피교육자의 정리되지 않았던 실무지식을 나름대로 재정리 했다는 차원과, 교육이전에 필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과정에서 얻어지는 실습을 통해 기대효과를 충족 시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무과목은 업무상황과 업무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피교육자에게 꼭 필요한 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업무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과목 분석 결과를 보면, 테러대응법, 질문 및 검색요령, 분사기 사용법으로 상위 빈도를 나타냈다. 테러대응법과 분사기 사용법으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국내 치안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고, 질문 및 검색요령과 분사기 사용법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으로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문제에서 필요한 과목을 분석하고 역으로 둘째 필요하지 않은 과목을 분석한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응답 신뢰도는 물론 응답 일치성이 있는 가를 보기 위해서다.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과목 중에서 제일 상위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화재대처법은, 필요하지 않은 과목 조사결과에서는 제일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 업무현장에서 불필요한 과목 중에서 제일 상위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테러대응법은 필요한 과목 조사결과에서는 제일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타 이외의 과목에서도 빈도 순위는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표 2>와 <표 4>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응답의 일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 과목의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활용성의 평균은 전 과목이 모두 3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직군, 직위, 고용형태, 연령)별로 평균차이분석과 사후검증 결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주최하고 있는 기관과 학계에서는 위 결과를 토대로 직군별, 직위별, 고용형태별, 연령별로 적절하게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경비와 기계경비가 하는 업무가 다르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차이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에 우선하기 보다는 기존의 과목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느 과목에 비중을 더 두고 교육시간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시

험 운영해보는 것은 우선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과목의 필요성과 활용성 결과를 비교해보면 예절 및 인권 교육은 업무현장에서의 필요성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높고, 또한 활용성도 높은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테러대응법과 질문 및 검색요령은 업무현장에서 필요성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활용성도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일부분의 과목은 필요성과 활용성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필요성과 활용성에서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분사기 사용법은 필요성이 있는 과목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반면 활용성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경우, 필요성과 활용성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고려하고, 필요성과 활용성에서도 떨어지는 과목의 경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과목 변경을 생각하는 등의 심층적인 노력이 민간경비원 신입교육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시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어 있는 현행 과목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과목,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과목과 교육과목의 활용성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지역 소재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업체 중 50명 이상 근무자의 민간경비업체(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표본 5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 12.0 Version 으로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t검정, 사후다중비교(Post hoc test)의 하나인 LSD 등을 이용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화재대처법 256(15.8%), 예절 및 인권보호 238(14.7%), 범죄예방론 223(13.7%) 순으로 나타나고, 업무현장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테러대응법 347(21.4%), 질문 및 검색요령 272(16.8%), 분사기 사용법 188(11.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교육시 실시되는 민간경비원의 교육과목 중에 위와 같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화재대처법, 예절 및 인권보호, 범죄예방론 등의 과목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시간을 증가시켜 보다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여 교육시간의 축소내지 타 과목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 실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교육과목의 개발과 교육방법을 달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살펴보면, 직군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차이는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체포 및 호신술 등에서, 직위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차이는 범죄예방론, 화재대처법, 분사기 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질문 및 검색요령, 이론교육전체, 실무교육전체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차이는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 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 및 호신술, 질문 및 검색요령, 실무교육 전체 등에서, 연령에 따른 각 과목의 활용성 차이는 테러대응법, 응급처치법, 예절 및 인권교육, 이론교육전체, 실무교육전체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 내용은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의 단적인 예로 보면, 교육에 참여하는 민간경비원은 그 업무가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고, 민간경비원의 종류도 또한 각기 다르게 호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군 집단으로 보고 이를 한데 모아 교육을 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행 민간경비원 신입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피교육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특성화 교육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보된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학계와 관련 산업 그리고 기관 등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정부의 시설 및 재정적 지원,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구의 결과를 실제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됨으로서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을 물론 민간경비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그 범위를 확대하지 못했으며, 또한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경비업, 기계경비업으로 제한 시켰기 때문에 민간경비원 전체에 대한 과목 활용성 분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규모의 연구 범위를 확대시켜 연구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경비업과 기계경비업과 더불어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에 이르기까지 민간경비원 신입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의 현장 활용성 결과를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 또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육과목의 차이분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지 말고, 교육기관별, 교육 객체라고 할 수 있는 피교육자의 교육태도 및 열의, 교육시간의 적절성, 교육환경 만족도, 강사의 자질 만족도, 교육인원 절적성 등이 교육과목의 활용성을 분석하는데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심층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공배완(2007).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8: pp. 27-31.
-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김상균(2004). “민간경비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7: p.592.
- 박동균·배철효(2007).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 훈련에 대한 인식분석과 함의”,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p.121.
- 백봉현(2002). “현행 민간경호산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4: pp.337-338.
- 서진석(2006). “민간경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비협회 제18차 최고경영자세미나 자료집』, p.15.
- 안황권 외 7인(2007).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p.93.
- 오홍석(2004). 『인사행정론』, 서울: 고시원, p.297.
- 이도형(1995). 『조직내 교육훈련의 학습 및 전이효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상천(2005).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pp.119-123.
- 이영석(2007). 『민간경비원 신입 교육 참여에 따른 학습 및 전이효과와 결정요인』,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p.8.
- 최응렬·오규철(2007).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 p.214.
- <http://www.police.go.kr>

ABSTRACT

A Study for the Necessity and Recognizing Usability of Recruit Education Curriculum for Security Personnel

Bang, Whan-Bog

Various Kinds of social pathology and crimes that threaten our daily safety are on the increase in process of time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empty of moral sense, Value Confusions, apolaustic tendency,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recently.

Moreover the effective provision of police service li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private security personnel have made an effort for safety and protection of group as well as an individua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ased on a benefit principle and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being become complexes utilizing technology as well as high-end device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is being extended rapidly with expansionism of society and public services but the quality improvement is declining. Furthermore the study of recruit education program for security personnel as the basis of quality improvement is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e study of police service.

Consequently, this investigation is going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ecruit education program for security personnel through the analysis about difference of each subject usability for education about electronic security and facility guard.

Key Word : Private Security Personnel, Recruit Education Program, Subject, Usability, Necessity